

2003 지역경제 정책의 기본방향

이 경 육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I. 머리말

바야흐로 21C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정보화, 노령화 등의 요인에 따라 경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세계경제의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경제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가 금년도 초기에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중반 이후부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우려가 가시지 않아 당분간 낮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금년초에 추가 감세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중반이

후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2003년도 경제 성장을 올 작년 (6.5%)보다 약간 낮은 5.8%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실업률도 2002년(3.0%)보다 높은 3.2%(KDI)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 국내경제 전반적인 여건은 상반기에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내수가 점차 둔화되는 대신에 수출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하반기에는 국내외 불안요소가 해소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기대지수*도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이하로 떨어지는 등 내수경기가 다소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원유는 OPEC의 실질감산 결정,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 고조와 베네수엘라 파업사태 장기화와 겹치면서 상승추세에 있고, 공공요금 등의 인상여파로 인해 물가가 다소 불안한 상태에 있다.

<2003年度 經濟展望>

구분	2001	KDI		삼성경제 연구소		LG 경제 연구원		한국경제 연구원		현대경제 연구원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GDP성장률(%)	3.0	6.1	5.3	6.5	5.8	6.0	5.6	6.1	5.8	6.2	5.7
민간소비	4.2	7.4	5.1	7.2	5.2	6.9	5.0	7.0	5.6	6.7	5.9
고정투자	-1.7	6.1	6.0	6.8	5.6	6.1	7.4	5.1	5.7	7.0	8.1
설비투자	-9.8	7.6	8.1	8.0	9.5	5.8	10.0	6.7	8.9	7.4	12.0
건설투자	5.8	4.9	4.4	5.9	2.5	6.3	4.51	3.9	3.1	6.9	4.7
상품수출	0.4	11.2	9.8	-	-	7.4	10.8	12.6	8.2	-	-
상품수입	-4.5	13.9	11.4	-	-	11.1	11.7	18.6	11.2	-	-
경상수지(억달러)	86.2	43	3	47.7	19.1	40	-6	43	-7.4	60	0~9
상품수지(억달러)	133.9	127	93	78.5	53.5	112	51	125.6	79.0	79	30
수출증가율	-12.7	6.1	7.9	6.7	7.0	5.0	10.2	6.6	7.2	9.0	6.7
수입증가율	-12.1	7.2	11.0	8.2	9.0	6.7	13.8	7.8	10.9	10.6	10.2
소비자물가(%)	4.1	2.9	3.6	2.9	3.6	2.8	3.1	2.8	3.0	3.0	3.5
실업률(%)	3.7	3.0	3.2	3.1	3.0	3.1	2.9	-	-	3.1	2.9

- CIS(통계청) : (02.3)109.7 → 물가안정관리 강화와 지역의 핵심역량 전
(02.6)110.6 → 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02.11)93.4 역량강화에 다양한 시책강구 및 지방 행·
· 재정력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 BSI(한은) : (02.2/4)126 → 글로벌시대에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02.3/4)119 → 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내수
(03.1/4)91 를 유지시켜, 성장률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IMF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재정투입 및 규제개혁, 행정력 보
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세계 순위는
여전히 중하위 순위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지방중소기업은 인력난, 판매부진, 자금사정 등으로 경영상태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월드컵 특수로 호황을 보이던 건설경기도 건축부분 수주가 감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WEF(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 : 21위(80개국중)
- 해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 52위(161개국중)

II. 地域經濟 與件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도 매서운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첫째, 경제발전전략이 비교우위적 사고에서 경쟁우위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지역)의 부를 지리적 위치, 자본, 천연자원, 노동력 등 부존자원에 근거하였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1세기에는 지식, 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쟁우위적 사고로 전환할 경우 얼마든지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과 산업구조는 다양한 고부가가치산업의 발굴이다.

21C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 지식집약도가 높은 산업 : 정보통신, 신소재산업, 환경산업 등
- 지식 거래산업 : 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업디자인, 문화산업, 인터넷비즈니스
- 지식투입 대비 부가가치 증가산업 : 패션의류, 고기능 특수신발, 첨단작물 등

셋째, 세계경제의 정보·디지털화에 따른 지방의 새로운 기회 부여이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디지털 기간망 구축과 모바일화 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건설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세계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응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이다.

거대한 중국시장의 부상과 일본과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남북교류진전 등에 대응하여 이들 지역에 맞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기회의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III. 地域經濟 現況과 問題點

지역경제 현주소의 정확한 진단으로 부상(浮上)된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기·제주 등은 IMF이전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반면, 부산·광주·강원 등은 위축되고 있는 등 IMF이후 지역별 경제회복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별 경제활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도권지역으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등 일부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인구 : ('60)20.8% → ('80)35.5% → ('00년)46.3%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

-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
-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 대규모공단/관광지 조성
-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 개별적, 단편적 추진

지역외부 환경

- 국제화/개방화/남북경협 확대
- 디지털화/네트워크화 진전
- 소프트화/환경친화 각광

지역내부 여건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지역 인프라 확충
- 주민 자치마인드 성숙

추진 방향

- 신 경제패러다임에 적합한 지역경제 기본틀 재구축
- 자치단체의 과학적인 경제행정 실현노력 유도 강화
- 중산·서민층 생계보호 등 생활경제행정 적극구현
- 자치단체장의 경제 CEO화 및 공직자·주민 경제마인드 제고

신 지역 활성화 전략

- 전통산업의 재 활성화
- 지역별 차별화 전략
- 신규 산업 발굴로 돌파구 마련
- 지역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 지역内外 네트워크 구축

<지역경제환경변화와 새로운 지역활성화 전략 방향>

- 경제력(GDP) : ('80)35.7% → ('00)44.6%
- 첨단 IT산업 집중(84%), 기술개발 역량 편중(기업부설연구소의 73%), 벤처기업 편중(71%)
- 셋째, 하드웨어 위주의 지역산업정책 추진이다.
- 그동안 주로 하드웨어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양적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지방의 인식부족으로 지역산업발전시책이 시설, 단지 등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등 지방의 인재, 기술, 정보 등 소프트관련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산업용지 미분양률 : 23%(북평 82%, 대불 84%)

넷째, 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수단의 부재이다.

핵심적인 경제행정기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고, 경제관련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난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 경제발전 전략도 부족한 실정이다.

IV. 地域經濟 活性化 重點支援 方向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증가, 기술개발, 우수인력확보 등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월드컵 극대화를 위한 지방의 세계화 노력의 강화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국가이미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문화, 관광상품 등을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 경제시책에 대한 행·재정 지원강화이다. 정부시책과 관련된 자치단체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육성 및 물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각종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환류 기능(Feed back) 강화이다. 정부부처 회의 시 경제현안에 대한 지방의견·건의사항의 반영과 경제관련 정부시책에 대한 통합조

정역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V. 2003年度 主要 力點施策

1. 地域經濟 活力提高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저변확대

세계화·무역자유화·첨단화 추세 등에 따라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미래첨단산업·지역특화 전통산업 등이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산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벤처빌딩·기술혁신센터·바이오 산업지원센터 등 지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임대공장·지역특화산업의 집적화시설·쇼핑몰 조성 등 지역전통산업의 유통과 상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그리고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농어촌지역의 소득창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2년에는 50개소에 4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역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의 마무리

재래시장 붕괴는 유통 및 지역상거래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중소도시의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져 영세상인들의 생계안

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47개 시장에 매년 200억 씩 총 600억원의 교부세를 투입하여 시장 환경을 개선중에 있다. 시장 환경개선의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장 신·증설, 진입로 확·포장,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시장 핵심 기반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설 현대화와 함께 업종 군집화, 공동이벤트, 카드결제 확대, 고객관리교육 등 경영현대화 사업도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다.

다. 생활경제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실시

월드컵 등으로 코리아 브랜드 가치가 크게 신장되고, 지방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외국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을 처음 대면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기초회화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를 업종 종사자들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일·중 등 주요 3개 외국어를 생활기초 회화 중심으로 교육교재를 편성하여 4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 지역중소기업 유망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상당수의 중소생산업체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자체브랜드

가 없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영세성 및 대외신인도가 낮아 품질에 비해 저가품 취급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공산품 공동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 유망 공동브랜드육성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상품 및 디자인개발과 국내외 마케팅, 전용판매장 설치, 판매촉진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스타브랜드 육성 및 브랜드의 이미지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 자치단체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

자치단체는 전문성·정보력 부족 등으로 경제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경제정책 수립 등에 애로점이 많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동향 등 경제정보를 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자치단체에서 시의 적절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정보 및 지식의 교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해외통상 우수사례 세미나」 등 학술관련 회의의 개최와 「시도 지역경제협의회」·「지역경제학회」·「지방출연연구원」 등 경제관련 전문기관과의 정보교환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2. 地域 均衡發展

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접경지역은 그간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삶의 질」이 열악한 반면,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천혜의 보고(寶庫)이므로 이들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생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 1. 21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3년 가까운 기간동안의 준비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이 2003. 1월 확정되었다.

지역 주민공청회,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3개시도 15개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될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올해부터 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286억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첫삽을 뜨게 되었다.

나. 공중화장실법 제정·시행

“공중화장실 문화는 선진국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이에 따라 화장실의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0. 4. 18일 공중화장실법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포되도록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은 도심지뿐만 아니라 주요관광지까지도 설치 및 정비가 미흡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도 불편을 주고 나쁜 인상을 심어 주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중화장실법이 제정·공포되면 올해부터 2005년까지 공중화장실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화장실 설치 및 시설개선을 통해 외국관광객들에게 선진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3. 中產庶民層 保護強化

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인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3%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공요금 등 61개 물가관리품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타물가에 파급효과가 큰 상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상시기와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물가의 효율적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모범업소 및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비자 단체 등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나.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내실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40대 이상 참여자와 여성세대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공공근로 사업은 물론 대졸자 공직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 고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총 3,500억원을 투입하여 322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는 1,550억원을 투입하여 저

소득 실업자 등 78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보화사업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상황과 실업률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VI. 맷음말

우리경제는 의존도가 높은 미국경제의 소비위축과 중국의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반 악화, 계속되는 일본의 성장감소 등 악재가 산재해 있어 대외경제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지방의 세계화, 전략산업 육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CEO화 등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고 각종제도와 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의 저생산성과 고비용 구조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통신, 금융·보험, 법무·회계와 같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기술 산업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개혁, 사회기반시설 확충, 각종 규제의 완화·정비 등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 내생적 지역경제발전 촉진, 특색있는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